

남북 정상회담 4월 말 판문점서 연다



남북 악수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가 지난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있다. 오른쪽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청와대 제공>

군사 긴장 완화 위해 남북 정상 핫라인 설치
북, 비핵화·북미관계 정상화 위해 미국과 대화
대화기간 추가 핵실험·미사일 발사 않기로
핵무기·재래식 무기 남에 사용 않겠다 약속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 대표단 수석특사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방북 결과 브리핑을 통해 4월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전날(5일)부터 이날까지 1박2일간의 방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렇게 밝혔다.

정 실장은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 통화를 실시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또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했다”며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며 “북측은 평창을 리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북미대화 중재를 위해 5일 방북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환했다. 정 실장을 수석특사로 한 특사단을 태

운 특별기는 서해 직항로를 거쳐 6일 오후 5시 58분경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특사단은 평양에 27시간 가량 머물렀다.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곤 국정원 2차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 특사단 5명은 특별기에서 내려 트랩 앞에서 영접을 위해 서 있던 조명관 통일부 장관, 청와대의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덕행 통일정책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과 악수를 한 뒤 청와대로 향했다. 특사단은 대부분 밝은 표정으로 영접 나온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였다.

특사단은 전날 방북 직후 평양 조선노동당 본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4시간 12분에 걸친 장시간 면담과 만찬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대화, 남북관계 개선 등 포괄적인 한반도 현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만찬에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은 물론 부인 리설주까지 참석시키는 파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남측 특사로부터 수뇌 상봉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해 들으시고 의견을 교환하시었으며 만족한 합의를 보시었다’고 보도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안희정 쇼크 ... 정치권 덮친 ‘미 투’

성폭행 파문 일파만파 안희정 “정치활동 중단”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무비서인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6면>

김씨는 지난 5일 밤 JTBC 뉴스룸에 출연, “안 지사의 수행비서를 맡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네 차례의 성폭행과 함께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는 “작년 7월과 9월 러시아·스위스 출장 등 대부분 수행 일중 이후 성폭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을 때에도 성폭행이 있었다”며



“안 지사는 ‘너를 가져서 미안하다’고 연신 사과하고 전화도 했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일했던 김씨는 지난해 대선 전 안 지사 캠프에 합류해 홍보기획팀장을 맡았다. 대선 직후엔 충남도청 소속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되면서 안 전 지사 가까이서 일했다.

이에 대해 지사 비서실은 “부적절한 성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했으나 안 전 지사는 이후 페이스북에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가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이라며 “오늘부터 도지사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활동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지사는 비서실 직원을 통해 도에 사표를 제출했고 충남도의회는 사표를 수리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안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파문이 터지자 민주당은 밤늦게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안 지사에 대한 출당 및 제명 조치를 밝기로 했다. 또 추대에 대표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에 경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 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00억원대 뇌물 ... MB 14일 소환

검찰, 피의자 신분 통보 다스 비자금 의혹도 수사

검찰이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다음 주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정식으로 통보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수사가 쌓여 소환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라며 “소환 조사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필요한 예의를 충분히 지킬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면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현정 사상 네 번째로 피의자로 검찰 포도라인에 서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국정원에서 최소 17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이 전 대통령이 또 자신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따른 투자금 140억원을 반환받는 과정에 국가기관을 개입하게 하고(직권남용),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 60여억원을 대납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받는다. 검찰은 최소 100억원대 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스의 조직적 인 비자금 조성 의혹과 아들 이시형씨의 개인 회사에 다스가 일감이나 자금을 몰아줬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이 전 대통령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누가 뭐나
신안군수·완도군수 ▶5면

전라도 1000년 인물 열전
고흥 - 마리아스·마가렛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로자-사틴 스킨, 눈부신 피부의 새로운 기준

헤라 로자-사틴 크림

속은 촉촉하고 겉은 보드라운 장미 꽃잎 같은 피부, 로자-사틴 스킨
섬세한 결계어로 완성한 이상적인 피부 컨디션입니다
로자-사틴 콤플렉스™를 함유한 크림이 선사하는 촉촉하고 매끄러운 피부결로
메이크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최적의 스킨을 경험하세요

HERA

전국 백화점,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hera.com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요금부담)